

여수·순천·광양 문학인 수필로 하나 된다

수필가 12명 ‘동부수필’ 발간
매월 모여 작품 합평회 갖고
연 2차례 이상 문학기행도

자연과 일상을 붓 가는 대로 쓴 글이 수필이다. 수필은 허구를 서사화하거나 감성을 리드미컬하게 형상화하는 시와 달리 삶의 진실을 담아내는 장르다. 일상의 체험을 진솔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수필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최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이 의기투합해 수필 창간호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시와 소설 등인지는 적지 않게 발행돼 왔지만 수필 장르 동인지 발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문학 장르 중 가장 많은 애호가를 둔 분야가 수필이라는 점에서 창간호의 발행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여수, 순천, 광양에서 활동하는 수필가들이 ‘동부수필’이라는 작품집을 발간했다.

책 제목이 말해주듯 ‘동부수필’은 전남 동부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필가들이 결성한 단체다. 지난 2010년 12월 지역 수필문학을 발전시키고 문학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결성된 순수 문학 동호회다.

회장은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엄정숙 작가가 맡고 있으며, 전 한국수필작가회장을 역임한 임병식 작가는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단에 등단한 12명의 수필가가 참여할 만큼 지역에서는 역량 있는 문학단체로 알려져 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엄정숙 작가는 “여수, 순천, 광양은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지만 생활권은 하나다. 문학을 매개로 지역을 통합하고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엄정숙, 임병식, 황동철, 송민석, 곽경자, 김권섭, 이희순, 양달



여수, 순천, 광양에서 활동하는 수필가들이 ‘동부수필’창간호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왼쪽부터 임병식, 양달막, 이임순, 곽경자, 박지선, 이희순 회원. <동부수필 제공>



엄정숙 회장

막, 박주희, 김수자, 이연화, 박지선 씨가 참여하고 있다. 회원들은 교직에서 퇴임한 전직 교사 출신과 공무원, 주부들로 구성돼 있다.

신생 문학 단체이지만 ‘동부수필’은 매우 의욕적으로 문학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매년 유명한 수필가를 초청해 문학 강연회를 열어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 이정립 수필가를 비롯해 홍역선 대구수필문학관장, 전 한국수필작가회장 한동희 작가 등을 초청해 수필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1년에 두 차례 이상 문학기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회원 간 친목 도모 외에도 저마다 개성적이며 수준 높은 문학을 해보

자는 의도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것이다.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임병식 수필가는 “‘동부수필’에서는 매월 한 차례씩 작품 합평회를 갖고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평회에서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자세로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해 서로의 발전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좋은 수필을 쓰기 위해 동인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창간 5년 만에 첫 작품집을 발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발간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역 문학 단체가 처해 있는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동부수필’은 매년 동인지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회원들은 첫걸음을 뚫으니 점차 타막하여 좋은 글을 쓰자고 의기투합한 상태다. 또한 앞으로는 출판기념회도 갖고 정기적인 세미나도 개최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친목도모에 힘을 쏟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적벽지에

화순 적벽 소재 가무극
국적 초월 사랑 이야기
11·12일 화순 하니움센터

높이 40m, 길이 17km의 넓은 면적에 펼쳐져 있는 화순 적벽은 조선 10경의 하나로 꼽히는 절경이다.

1982년 전남도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됐지만 3년 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설날 등에 별초나 성묘를 위한 실랑민을 제외하고는 개방이 허락되지 않았다.

적벽은 지난 3월 인터넷 예약을 통해 일반 공개를 시작한 후 3만여명이 다녀갔다. 유명한 화순 적벽을 배경으로 가무극이 공연된다.

쟁이다인이 무대에 올리는 ‘적벽



지에(赤壁之愛·사진)가 11일(오후 2·5시), 12일 오후 2시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대강당(적벽실)에서 공연된다.

‘적벽지에’는 적벽과 운주사 등 아름다운 화순의 절경을 배경으로 몽고의 자객들에게 쫓기고 있는 주잠의 딸 주홍과 그녀를 보호하려는 고려 청년 구준유의 운명 같은 사랑을 통해 국적을 초월한 두 남녀의 아름다운 인연을 그린 작품이다.

화순 적벽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영상과 화려한 가무, 창극이 어우러진 ‘적벽지에’는 특히, 송나라에서 건너온 주잠 일행을 맞이하는 마을 잔치 장면 몽고군과의 전투 장면이 볼거리다.

화순군이 후원했으며 공연 총연출은 쟁이다인 대표 이정수씨가 맡았다. 삼성무용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2012 여수엑스포 개·폐막식 안무감독과 창작무용극 ‘비연의 혼’, ‘제국의 아침’ 등을 후원했다. 무료 관람. 문의 061-379-351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용과 타악의 다이나믹한 조화

연희단체총연합회 광주지회

11일 문예회관에서 정기연주회

(사)한국연희단체총연합회 광주지회(회장 박정진) 세번째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타 그리고 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흥겨운 타악기와 무용의 아름다운 몸짓이 어우러진 레퍼토리들이 공연된다.

무용과 타악의 다이나믹한 조화가 돋보이는 ‘춤추는 북’,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태평무’, 장구의 현란하고 다양한 가락으로 진행되는 ‘얇은 반 설장구’,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승무’, 국악의 대표적인 장르인 ‘사물놀이’, 액을 제거시켜 안심입명을 가져온다는 ‘살풀이춤’ 등을 만날 수 있는 무대다. 마지막 무대는 굴렁쇠의 설장구와 극단 ‘격자’의 사자춤이 어우러진 풍물판굿이다.

이번 공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



호 승무, 제9호 살풀이춤 이수자이며 제18회 전주대사습무용 부문 장원을 수상한 김덕숙씨가 참여, 무대를 빛낸다. 문의 010-2980-11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예술재단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11·12일 여수 예술마루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나누기 위한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오는 11일부터 12일 여수 예술마루 다목적실에서 개최한다.

행사주제는 ‘가족 워크숍-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워크숍 이끌어내기’. 미국 뉴빅토리 극장(New Victory Theater)의 교육 및 공공참여부 디렉터 린제이 벌러 말리켄씨와 선임 예술감사인 사라 피터셀씨가 강사로 나선다. 워크숍은 이들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남지역 참석자들이 강사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으로 진행된다.

미국 뉴빅토리극장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예술공연을 선보이는 교육 전문기관으로, 연극·춤·인형극 등 아동과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1-280-584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MBC 등 지역 8개사 ‘인문학특강’ 펴내

대학을 비롯한 도처에서 인문학 위기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과 사회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연중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가 열리고, 공기업 연수 과정에서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역 MBC 아나운서 겸 PD 여덟 명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은 ‘인문학은 세상을 신선히 살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지역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섬의 인문학과 이순신의 리더십’

(목포 MBC),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리더십’(춘천 MBC) 등을 다루었다.

이 같은 방송을 토대로 광주MBC 등 지역 8개사 제작팀이 ‘인문학특강’(모시는 사람들)을 펴냈다. 책은 고전평론가 고미숙, 소설가 이화경, 경향대 한상덕 교수, 우석대 조법종 교수, 고려대 정창권 교수 등 인문학자이자 저자인 13인이 고전에 담긴 지혜를 들려주는 데 초점을 둔다.

책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인문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근하게 구성됐다. 무엇보다 저자들 특유의



입말이 살아 있어 생생한 재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 씨는 “우리가 아프고 괴로운 것의 근원에는 다 무지(無知)가 있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라며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공부의 진정한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고전은 바로 이런 길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지요”라고 의미를 평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펜션·박물관 / 미술관·식당·찻집등

최고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가능 / 도 관광 진흥자금 유치 가능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공동중개환영 H.010-3605-5000

펜션,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2억이상 순수익 가능!

